Sting의 음악어법 연구
- 리듬편곡을 중심으로 -

엄수한, 조태선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ohmsoohan@hanmail.net
e-mail:entheos@korea.com

A Study on Musical Languages of Sting
- On the Focus of Rhythm Arrangement -

´Soo-Han Ohm, ″Tae-seon Cho
´Dept of Applied Music, Yeoju Institute of Technology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영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인 스팅이 폴리스 해체 이 후 25년이 넘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인정받는데 큰 발판이 되었던 <Nothing Like The Sun(1987년)>음반에 포함된 곡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편곡적인 특징과 리듬적 특성, 즉 드럼비트를 쪼개서 리듬을 분할하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퍼커션과 다른 악기들의 리듬분할을 통해 곡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서 론

스팅은 1985년 첫 솔로앨범인 <The Dream Of The Blue Turtles>를 필두로 세련된 감각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1억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올린 영국을 대표하는 뮤지션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팅이 솔로 아티스트로서 폴리스 해체 이 후 25년이 넘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인정받는데 큰 발판이 되었던 <Nothing Like The Sun(1987년-정규 2집)>음반에 수록된 'Lazarus Heart'를 중심으로 연주패턴과 음악적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대중들에게 오랜 시간동안 꾸준히 인정받을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솔로 초기 스팅만의 독특한 악기별 리듬구성과 역할배분은 다른 뮤지션들의 음반과는 사뭇 다른 그만의 독특한 사운드를 창출해낸다. 특히 이 시기의 음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편곡적인 특징과 리듬적 특성, 즉 드럼비트를 쪼개서 리듬을 분할하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퍼커션을 포함한 다른 악기들의 리듬분할을 통해 곡의 기본적인 리듬 흐름을 이끌어가는 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2. 본 론

2.1 Sting의 정규 2집 앨범 <Nothing Like The Sun(1987)>

폴리스에서 솔로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스팅은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시각을 음악에 담아냈다. 그의 두 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Nothing Like The Sun>은 발매 즉시 까다로운 평단과 대중의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으며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다. 그는 이 앨범에서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음악 안에 녹여내는 데에 주력했다. 4번 트랙인 'History Will Teach Us Nothing'과 5번 트랙의 'They Dance Alone' 두 곡은 넬슨 만델라 석방요구 공연, 국제사면위원회(국가 권력에 의해 처벌받고 억압받는 정치 사상범의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기구) 주최공연에 참여해 온 스팅의 사회적 의식 세계와도 맞닿아 있는 듯하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겨있는 'They Dance Alone'과 훗날 스팅이 직접 리메이크해서 발표한 "Fragile"은 9.11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로 쓰이기도 했던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하다.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져 가는 주옥같은 곡들로 가득한 <Nothing Like The Sun>. 그 중에서도 특히 'Fragile'과 'Englishman In New York'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독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며 전쟁과 폭력의 잔인성을 고발하는 'Fragile'과는 달리 'Englishman In New York'은 감칠맛 나는 재즈선율과 서서히 귀에 젖어 드는 스팅의 매력적인 보이스가 돋보인다.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시절, 동성애자임을 당당히 밝혔던 스팅의 친구이자 작가인 쿠엔틴 크리스프(Quentin Crisp)를 위해 그가 직접 작곡한 노래다. 실제로 쿠엔틴 크리스프의 작품 중에도 스팅의 노래와 동일한 제목의 'I'm an Englishman in New York'이라는 책이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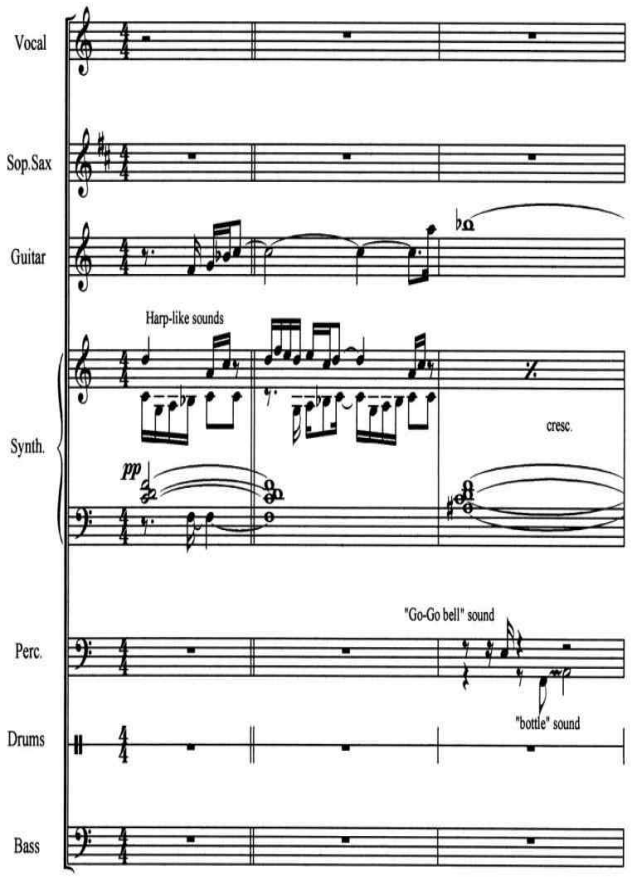
이 곡의 진짜 매력은 인간미마저 사라진 대도시의 위선을 꼬집는 가사에 있다. "I'm an legal alien"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에게 선을 긋고, 주류와 비주류를 나누는 사회의 이분법적인 시선을 비틀고 조롱하는 스팅의 위트가 돋보인다. 나지막하게 마음을 두드리는 스팅의 음악은 풍부한 감성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듯하다.

2.2 Lazarus 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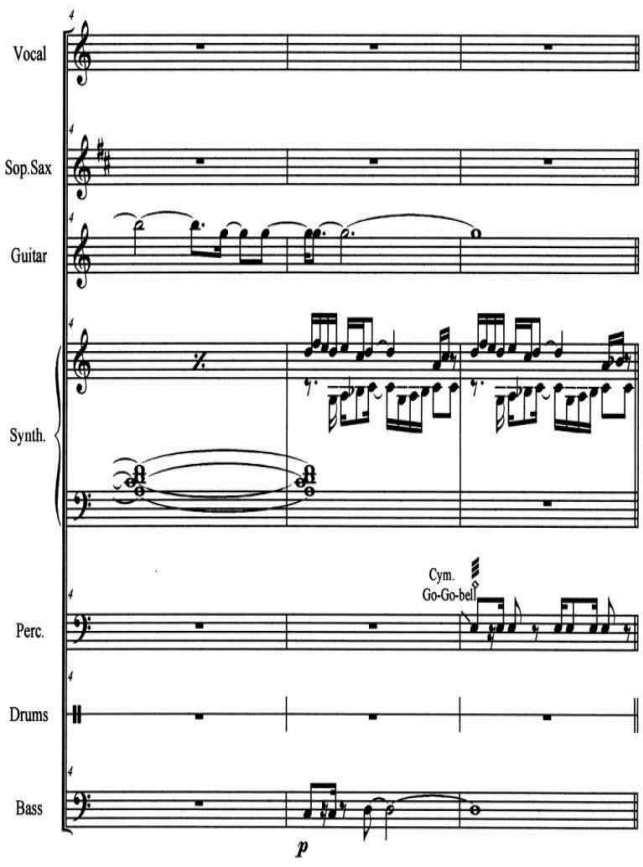
노래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표 1] 노래 형식 표기

<Intro>	전주
<Interlude>	간주
<Outro>	후주
<Verse>	멜로디의 도입 부분
<Chorus>	멜로디의 후렴 부분
<Bridge>	Verse와 Chorus 이외의 다른 멜로디 부분



<그림 1> Intro의 1~3마디



<그림 2> Intro의 4~6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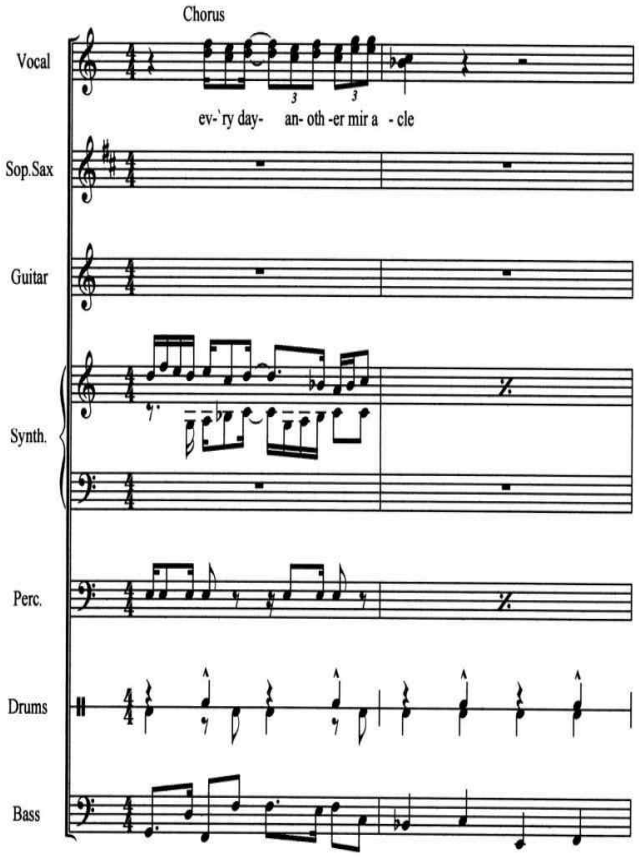
<Nothing Like The Sun>음반의 첫 곡인 'Lazarus Heart'의 Intro 부분 중 못갖춘마디를 포함한 6마디이다. 기타와 크로매틱 퍼커션 계열의 신디사이저 톤으로 페이드 인(Fade In)되며 시작된다. 기타 톤에는 코러스(Chorus)와 롱 딜레이(Long Delay) 등의 이펙트를 사용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신디사이저에 사용된 크로매틱 퍼커션 계열의 톤이라 함은 마림바나 실로폰, 비브라폰, 첼레스타, 뮤직박스 같이 반음계를 포함한 정확한 절대음을 가지고 있는 유율(有律)타악기를 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16비트의 리듬이 주가 되는 음악에서는 기타가 리듬 백킹을 하고 건반악기가 선율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곡에서는 예외적으로 건반악기가 16비트의 패턴으로 된 싱코페이션 리프(Riff)를 연주하고 기타는 슬라이드 패턴으로 마치 바둑에서 포석을 깔 듯 띄엄띄엄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절제된 연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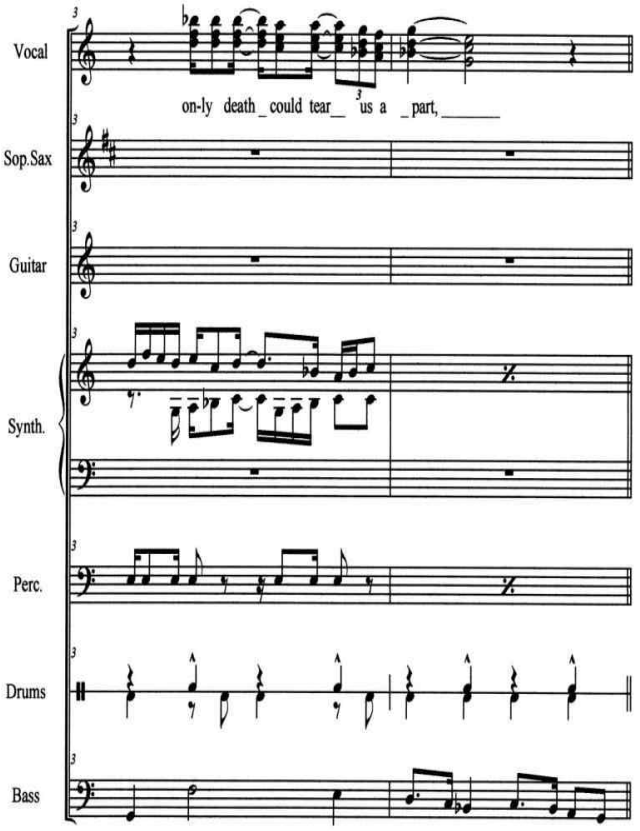
크로매틱 퍼커션 계열의 신디사이저 톤이 연주하는 패턴을 살펴보면 두 개의 성부로 되어있는데 윗 성부는 스트레이트한 느낌으로 16비트의 반복적인 패턴을 연주하고 있고 아랫 성부는 윗 성부와는 대조적으로 업 비트를 강조하여 윗 성부에서 멜로디가 잠깐씩 머무르는 빈 곳들을 골라 완벽한 싱코페이션 느낌을 살리고 있다.

퍼커션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인트로 부분의 처음 4마디는 고고벨(Go-Go Bell)과 바틀(Bottle) 사운드를 이용하여 신디사이저의 아랫 성부가 했던 업 비트를 강조하는 역할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 한 점은 고고벨과 바틀 사운드로 연주하는 딱 세 개의 노트(Note)로 된 간결한 패턴이 이 곡을 앞으로 이끌어 갈 베이스와 드럼비트를 미리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처음의 4마디가 지나고 난 뒤부터 베이스 기타의 등장과 더불어 고고벨은 통상적인 두 마디의 싱코페이션 패턴으로 곡이 페이드 아웃(Fade Out)으로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주된다.

이 곡의 코드 진행은 인트로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Bb - C : Bb의 두 마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베이스 기타는 한마디는 리듬을 연주하고 마지막에 싱코페이션으로 다음 마디의 끝까지 연결되어 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퍼커션과 신디사이저의 리듬적인 연주 효과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일종의 배려이며 Verse 부분에서의 절제된 연주패턴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림 3> Chorus의 1~2마디



<그림 4> Chorus의 3~4마디

스팅의 담백한 보이스와 절묘한 조화를 이뤄 스튜디오 레코딩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생동감 있는 흐름을 이끌어 간다.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과 연주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렇듯 세련된 사운드로 시종일관 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유기적으로 잘 짜여진 리듬 패턴이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고, 거기에다 각 악기 파트가 서로 간의 간섭과 뒤엉김이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할 역할만을 군더더기 없이 잘 해 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왼쪽의 악보는 Chorus부분의 첫 4마디이다. 이 부분은 Verse부분에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Bb - C - Bb의 반복적인 2마디짜리 코드 패턴과 시종일관 동일한 베이스기타의 싱코페이션 연주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리듬적인 변화를 보자면 베이스와 드럼의 강한 어택에서 벗어나 디스코 리듬이 바탕이 된 기본적인 8Beat로 가볍게 6마디를 이끌어 가고 있다. 물론 Intro와 Verse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크로매틱 퍼커션 계열의 신디사이저 톤은 일렉기타의 리듬과 맞물려 이전보다 더욱 더 강렬한 리듬효과를 보여준다. 마치 첫 박에 강한 엑센트를 준, 16Beat 딜레이가 걸린 아르페지에이터(Arpeggiator)를 사용한 것 같은 느낌과 많이 비슷하다.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베이스기타의 연주패턴이다. 디스코 패턴의 드럼연주에 어울릴 만한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독자적인 연주를 보여주고 있다. 어찌 보면 워킹 베이스(Walking Bass)에 더 가깝다고 하는 게 적절할 듯하다. 드럼과 베이스만 따져보면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8Beat의 드럼 리듬은 독자적으로 곡의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고, 신디사이저와 퍼커션의 16Beat 싱코페이션과 베이스 기타의 16Beat 붓점으로 된 음들이 고스트 노트같은 느낌을 주며 절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곡의 Intro.와 Verse부분은 같은 리듬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Chorus부분의 첫 6마디만 싱코페이션이 없는 단순한 디스코 리듬이 사용되었다. 물론 Intro부터 나왔던 신디사이저와 퍼커션 조합의 16Beat 리듬 백킹은 여전히 곡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오고 있다. 간주의 5마디까지는 Main Intro에 나오는 섹소폰 테마와 다를 바가 없으나 6마디 째부터는 점8분음표 길이의 리듬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세 마디를 연주하고 있다. 지금까지 착실하게 지켜왔던 4/4박자 느낌에서 벗어나 베이스 워킹이 가미된 스윙(Swing) 느낌의 변박을 첨가한 것이다. 드럼은 일반적으로 스윙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드 심벌(Ride Cymbal)을 이용하여 연주하지 않고 락적인 느낌이 강한 하이햇 테크닉으로 세게 연주하고 있는데, 이는 앞부분과의 사운드 밸런스를 고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섹소폰의 멜로디나 전체적인 연주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다시 Verse로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신디사이저와 퍼커션은 처음부터 연주해 왔던 16비트의 패턴을 고수하고 있는데 점8분음표의 변박 패턴과 맞물려 지금까지는 느낄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스윙 패턴의 변박을 첨가한 이 부분은 스팅이 대학을 중퇴하고 몸담았었던 뉴캐슬 빅밴드와 Last Exit시절 몸에 익혔던 재즈적인 느낌들을 자신의 음악에 고스란히 담아낸 예 중의 하나라 하겠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팅이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정규 2집 <Nothing Like The Sun>음반의 Lazarus Heart를 중심으로 연주패턴과 리듬적인 면에서의 특징들을 분석해 보았다.

스팅의 음악을 분석해 보면 재즈, 락, 월드비트, 일렉트로니카, 힙합, 레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솔로활동 이전에 그가 거쳐 왔었던 뉴캐슬 빅밴드나 라스트 엑시트(Last Exit), 그리고 폴리스(The Police)에서의 풍부한 음악적 경험들이 한몫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스팅은 자신이 늘 갈망했던 다양한 음악에의 욕구와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악기들을 오랜 시간동안 배우고 꾸준히 연구해왔다. 왜냐하면 각 악기 간의 음악적인 소통이 조화를 이뤄야만 좋은 작품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가 베이스 주자인 점을 감안해 보면 곡의 구성에 있어 리듬적인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작품의 편곡과정에 있어서 각 악기 간의 리듬구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리듬이 곡의 스타일 변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혹자들은 스팅의 음악이 쎄션에 참여했던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세련되고 깊이 있는 연주 때문에 빛을 발한다고들 말한다. 그의 음악이 화려한 쎄션들의 연주를 등에 업고 과대평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연주가 스팅의 음악에 기여한 바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참여해서 스팅의 음악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뇌하고 다양한 시도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자신의 음악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불살랐던 스팅과 함께 했기에 그들의 연주가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본 논문을 마무리하며 느끼는 것은 좋은 음악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과 끊임없는 열정을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산물(産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팅의 음악이 대중들로부터 오래도록 꾸준히 사랑 받는 건 어쩌면 아주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1] Clarkson, Wensley 「Sting, The Secret Life of Gordon Sumner」 Blake Publishing, 1996
[2] Gable, Christopher 「The Words and Music of Sting」 Praeger Publishers, 2008
[3] Hal Leonard Publishing 「Sting - Nothing Like The Sun」 Hal Leonard Publishing, 2007
[4] James Berryman 「Sting and I」 Blake Publishing, 2005
[5] Sandford, Christopher 「Sting, Back on the Beat」 Carroll & Graf Publishers, 2007
[6] 나인화 「짬짬이 읽는 팝의 역사」 라이프하우스, 2009
[7] 이종환 「팝송은 죽었다」 리즈앤북, 2004
[8] 정일서 「365일 팝 음악사」 돋을새김, 2009
[9] 조정아 「팝 음악의 결정적 순간들」 돋을새김, 2004